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지식캠퍼스에서 손자병법을
강의하게 된 김원중입니다. 오늘은 제1강 왜 손자병법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화두는 무엇입니까?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존하기 위한 사유는 뭘까요?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때 수많은 제후국들이 멸망과 생존을

거듭하던 시대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두루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죠. 아마 요즘 기업치고 중국과 관련 없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유를 알기 위한
어떠한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싸울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얘기하죠. 바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또는 감정적

대응이 최고일까요? 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손자병법은 성공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필독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1세기
한국 주류의 사회는 유가일까요? 법가일까요? 병가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유가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명분을 대단히
중시하고 실질보다는 주변의 분위기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변에 4강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아베

등등 다 강한 자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자신이 읽은 4천여 권의

책 중에서 손자병법을 최고의 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손자병법에는 전략, 전술을 담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마오쩌둥과 장제스,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마오쩌둥이 이기고 중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절대적인 전력 면에서는 장제스가
마오쩌둥한테 절대 싸움에서 질 수 없는 경기였었죠. 그런데

그것을 마오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손자병법과
사기를 끼고 다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제스는 항상 논어와 주역을 손에 끼고 다녔고 바로
장제스는 논어를 통해서 항상 명분을 중시하고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했지만 마오쩌둥은 철저하게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 바로 전쟁을 했던 것이죠. 바로 마오쩌둥이

그 유명한 16진법, 유격전술의 기초가 된 16진법의 내용을
볼까요? 적진아퇴 즉, 적이 진군하면 아군은 물러나고

ê¹ □□ì¤□_01-5M MP4 [□ì□□ë³ □ë² □ , ê].txt.....Ø · ©ù.....ô° ..÷ · .....pdf[2019-11-04 오전 11:38:25]

적주아요, 적이 주둔하면 아군은 교란시키고 적피아타, 적이
피곤하면 아군은 타격하고 적퇴아추, 적이 물러나면 아군은

추격한다라고 하는 이 16글자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강이피지
즉, 적이 강하면 아군은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유격전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장제스한테
밀려서 수많은 퇴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결국은 자신의 달아나는 행위 즉, 도망가는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신의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결국은 1949년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그 16진법이 바로 손자병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오가 선택한 손자병법,
장제스가 선택한 논어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손자는 전쟁을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고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로

손자병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잘 두는 체스와 중국 사람들이 두는 바둑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바둑의 무궁무진한 수 싸움을 하듯이 손자병법은
단순하게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서 인생사에 있어서 수많은 싸움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로, 나는 중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로 손자병법을

읽어야 된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손자병법 13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첫 편.

계, 작전, 모공과 또 형, 세, 허실 즉, 앞에 1부와 2부에서
주로 전략, 전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등과 화공, 용간 편에서는 주로 실질적인
전쟁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6편과 뒤에 7편에

나오는 그 2가지. 즉, 앞에 6편은 이론편이고 뒤에 7편은
실전편인데 이 두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손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러면서 지의 문제 즉, 아는 문제를 대단히 중시했고 결국은

적의 전력과 아군의 전력 또는 나의 현재의 상황과 적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자병법의 가치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유의 폭을 확장해서 생존과 발전의 모델로써
과연 병법서만 한 것이 있을까요? 삶의 전환점에서

여러분들은 선과 악, 흑백으로 편 가르기를 하지 않으시나요?

ê¹ □□ì¤□_01-5M MP4 [□ì□□ë³ □ë² □ , ê].txt.....Ø · ©ù.....ô° ..÷ · .....pdf[2019-11-04 오전 11:38:25]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체면과 명분을
따지십니까? 아니면 실사구시의 자세로 생존을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패기만만한 20대, 여러분들은 20대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있으실 겁니다.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승리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고 부득이할 때 써야만
한다는 손자의 가르침. 특히 손자가 백전백승이라는 말

대신에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지피지기를 하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ê¹ □□ì¤□_01-5M MP4 [□ì□□ë³ □ë² □ ¸ê].txt.....Ø · ©ù.....ô° ..÷ · .....pdf[2019-11-04 오전 11:38:25]